

##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어머니의 자신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조결자\*\* · 이군자\*\*\* · 이옥자\*\*

### I. 서 론

아기의 출생은 가족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준다. 그러나 아기는 출생즉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부모의 책임은 하루 24시간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므로, 부모가 된 사람들은 부모역할 수행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원, 1990). 어머니가 신생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부족, 및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 어머니로서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이, 1987) 그러한 책임이나 의무를 맡게 되는데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조, 정과 이(1996)은 신생아 돌보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먼저 어머니의 간호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들은 일반적 관리에 대한 내용보다는 질병이나 이상증상을 구별하는 방법, 증상발현시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였다.

어머니가 충분하고 숙달된 어머니 역할을 못할 때 어머니다운 감정에 실망을 주게 되며, 이것은 갈등현상을 일으켜 위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어머니들은 학습을 통해 어머니 역할을 획득해 나가고 분만 후 4-6주 경에는 어머니 역할에 대해 적절히 적응하여 자신감을 갖기 시작(Reeder, 1987)하므로, 대부분의 산모들은 퇴원 후 4주 동안에 신생아 양육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게 되어

(Lemaster, 1977 ; 이, 1992) 이 기간동안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지지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감 있고 올바른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분만 후 조기퇴원의 경향과 핵가족화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게 되었다. 특히 부모가 느끼게 되는 가장 어려운 부담 중 하나는 그들의 지식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조, 1996). 간호사는 지식부족이라는 간호진단을 내리기 전에 지식부족이 원인이라면 필요한 지식을 대상자에게 적합하게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병원의 대부분의 간호사들의 교육활동은 산모가 입원해 있는 산후 2-3일간의 즉각적인 신체적 간호와 신생아 수유와 목욕시키기 등의 일부 내용만을 교육시키거나, 교육을 시키더라도 비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녀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으로 생기는 부담감의 정도는 “자녀돌보기로 인해 피곤하다”와 “자녀돌보기 지식이 없어 찢찢맨다”의 항목의 순으로 가장 높았음(한, 1997)을 볼 때 지식부족에 의한 부담감 때문에 교육의 요구도는 상당히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Rubin(1967)과 Klaus 등(1972)의 연구에서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신생아 돌보기 활동이 행해질 때 가장 강하게 생기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아기 돌보기 활동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산모들은 아기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는 욕구가 있고 자신의 아기를 돌볼 수 있을 때

\* 경희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가천 길대학 간호과

더욱 더 애착을 느끼게 된다고 신생아 돌보기 활동을 강조하였다.

어머니들은 아기의 특성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즉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의 욕구가 다르며, 또 서로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함을 교육해야 한다(Bigner, 1985). 아기에 대한 인식이나 신념은 양육태도로 연결되어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의 양육태도가 어떤지를 확인하며 잘못된 양육태도는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신생아 돌보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연구들은 산전이나, 산후에 산모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선행연구에서 산모교육의 효과측정은 지식과 자신감에 대한 자가보고 형식이 대부분이었으며(이, 1990; 정, 1993; 곽, 1996; 서, 1998; Rauh, Achenbach, Nurcombe, Howell & Teti, 1988; Walker, Crain & Thompson, 1986). 양육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는 Field 등(1980)에 불과 하였다. 이(1990)의 정상아를 분만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의 교육효과를 연구한 결과 차이가 없었으나, 곽(1996)의 정상아 분만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산모교육과 전화상담 후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산모의 자신감을 조사한 결과 자신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고, 정(1993)도 정상아를 분만한 초산모 대상의 산모교육 후 자신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산모교육 후 산모의 자신감에 관한 연구가 일관성이 없고 양육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출산 초에 산모교육을 통해 일반적인 신생아 간호와 교육요구에 따른 내용을 교육시키고 모성역할획득 후 자신감을 갖게 되는 출산 후 4주 경에 어머니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양육태도의 변화로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신생아 어머니의 아기 돌보기 자신감과 양육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구체적 목적

- 1)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산모교육이 산모의 자신감에 미치는 교육효과를 규명한다.
- 2)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산모교육이 산모의 양육태도

에 미치는 교육효과를 규명한다.

- 3) 신생아 돌보기의 내용별로 교육의 효과를 파악한다.
- 4)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내용별로 교육의 효과를 파악한다.

### 2. 가 설

- 1)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어머니의 자신감 정도가 높을 것이다.
- 2)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양육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 3. 용어 정의

#### 1)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아기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적인 역할에 대하여 어머니 스스로 자신을 갖거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Pharis(1978)의 Self Confidence Scale을 이용하여 양육적인 역할 중 일상적인 신체돌보기 활동인 아기울음의미 파악, 목욕시키기, 수유하기, 기저귀 갈아주기, 옷갈아 입히기, 안아주기, 아기상태설명, 체온측정, 손·발톱 깎아주기, 눈·코·귀 깨끗이 해주기, 좋은 엄마 되어주기, 배꼽돌보기, 우는 아기 달래주기, 이상증상발견, 땀뭍질 멈추게 하기, 포옹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득점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 양육태도

엄마가 아기를 기르는 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Cohler의 Maternal Attitude Scale을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로 아기의 양육과 관련된 지각, 태도, 그리고 영아에 대한 기대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기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 II. 문헌 고찰

간호사는 산욕부가 퇴원 후 신생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와 상담하고 교육시키며, 어머니의 역할을 성취하는데 지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신생아 돌보기 활동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기술과 이해이며, 돌보기

활동을 포함한 어머니 역할 획득은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며, 산모가 신생아 간호에 대하여 적절히 준비되었다는 감정을 크게 가질수록 만족감이 더 크고, 출생 3개월 동안 아기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게 된다(Butnarscu, 1983 ; Pridham, 1982).

어머니와 아기가 지속적으로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생아의 정신건강에 필수적이며, 어머니가 제공해주는 돌봄의 결핍은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발달장애 및 성격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한, 1987 ; 이, 1987).

특히 신생아 초기는 신생아의 의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신생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 1987). Reeder(1980)는 출산 후에 겪게 되는 많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에 대하여 산육기 동안에 산모자신과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관리법을 습득함으로써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어머니가 첫아기와 적응할 때의 어려움을 만삭아군에서 37.0%, 미숙아군에서 63.0%였음을 보고하였고(백, 1990). Dyer 등(1983)은 53%이상의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으며, Russel(1974)은 42.2%가 어려움을 느꼈으며 부모가 된 첫 1년 동안 어려움과 동시에 만족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들의 신생아 간호를 위한 교육내용으로 Davis 등(1983)은 목욕시키는 법, 신생아 안위법, 수유법, 제대간호, 대변과 잠재우는 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고, 김과 이(1983)와 Shaw(1974)는 신생아의 성장발달에 관한 지식과 양육방법, 영아의 영양요구 등을 교육할 것을 권했으며, 박(1991)은 산육기 초산모의 모성전환에 관한 연구에서 초산모는 아기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지각하지만 아기를 안는 것, 기저귀 가는 것, 수유, 목욕, 아기의 신체적 불편감에 대해 잘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조, 정과 이(1996)는 정상신생아 어머니군에서는 발작시 관리법, 선천성 질환검사, 청색증시 관리법과 질병시 신호와 증상에 대한 관리법에 관하여 교육요구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백(1990)의 영아돌보기 자신감에 관한 연구결과 만삭아군에서는 ‘수유하기’, ‘기저귀 갈아주기’, ‘옷갈아입히기’가 최고 점수를 보였고 ‘영아울음의 의미파악하기’는 최저점수를 보였으나 미숙아군에서는 ‘눈, 코, 귀 깨

끗이 닦아주기’가 최고점수를, ‘영아울음의 의미파악하기’와 ‘체온측정’하기가 최저점수를 보였다.

그런데 교육의 효과는 요구도가 높을 때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서 Brown(1982)은 분만 후 산모가 병원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학습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고 Klaus와 Kennell(1982)은 출산직후 의사나 간호사의 영아에 대한 태도와 관행의 시범은 산모에게 중요한 정보의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

신생아 어머니의 교육효과에 관한 국내연구를 보면 김과 이(1983), 서(1998)의 연구결과 신생아 양육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산모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산모에 비해 신생아 양육에 관한 지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을 보고하였고, 김과 이(1984)은 신생아 양육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은 군이 목욕시키기, 영양공급, 안전유지 및 이상증상확인을 쉽게 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1990)의 정상아를 분만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교육전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교육후 10-12일경에 조사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의 점수비교에서 점수차이가 없었으나, 이(1992)의 실험처치 후 2-3일에 측정된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측정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았으며, 정(1993)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후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하였고, 광(1996)도 산모교육 후 퇴원 당일 1시간 전에 측정된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교육전보다 높아졌다고 하였으며, 서(1998)도 초산모 대상으로 입원 중 교육하고 퇴원 1주와 2주에 전화상담한 후 4주에 조사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교육받지 않은 군보다 더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Walker 등(1986)의 분만 후 1-2일과 4-6주에 측정된 모성 역할 획득자신감은 초임부의 경우 산모의 연령, 교육, 사회경제적 수준과 수유행동이 관련 있었고, 경산부의 경우, 자신에 대한 최초의 태도만이 관련있었다고 하였다.

Rauth 등(1988)이 저체중출생아 대상으로 입원 마지막주부터 퇴원 3개월 이상에 걸쳐 11가지로 구성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어머니의 자신감과 만족도가 더 증가하였고, 아기 기질을 더 잘 지각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각 나라의 사회적 관습이나 가치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경험과 가치에 따른 신념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시간이 경과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Josten(1982)은 어머니가 갖는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 꼭 행동으

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아기는 언어의 이해도가 높으며 짜증을 내지 않고 기분좋은 음성을 내고, 부정적인 반응이 덜했으나(Sarale et al., 1978), 부모에 의해 아기가 부정적으로된 경우 저항적이거나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며(Sroufe, 1985), 심지어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Lipkin, 1978).

어머니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부적절한 신체적 돌봄과 함께 보호의 결여, 부적절한 영양공급 및 아기와의 관계시 경직되거나 긴장된 자세를 취하며, 아기의 신호와는 무관하게 아기를 갑자기 움직이거나 아기에 불쾌한 언어적,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등 아기의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에, 적응적인 어머니는 아기를 편안히 안고서 포옹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주기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흔들어 주며, 점차 관심을 갖고 주의를 집중하여 눈접촉을 시도하며, 미소를 띄는 등의 양상을 나타낸다(김, 1991).

Field 등(1980)은 미숙아를 분만한 10대모에게 부모 훈련 중재를 제공한 결과 훈련을 받지않은 성인 어머니 보다 생후 4개월에 더욱 적절한 성장발달을 보였고, 안면대 안면 상호작용이 더 잘되었으며 양육태도가 더 현실적으로 표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간의 어머니의 자신감 및 양육태도를 비교하는 비 동등성 대조군 전 후 유사실험연구이다.

####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의 K 의료원에서 재태기간 37주 이상 42주 이내이며 출생시 체중이 2500g 이상의 정상신생아로 정상분만 혹은 제왕절개로 출생한 단태아이며 선천적 결함이나 심각한 질병이 없는 신생아와 그의 어머니 40쌍이다. 대상 어머니는 분만후 2-6일 이내의 어머니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를 임의 표집하였다.

#### 4. 측정 도구

##### 1)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어머니의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자신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Pharis(1978)의 Self Confidence scale를 토대로 하고 일부분항을 보완하여 아기의 울음 의미파악하기, 목욕시키기, 수유하기, 기저귀 갈아주기, 옷갈아입히기, 안아주기, 아기 상태설명, 체온측정, 손발톱 깎아주기, 눈 코 귀 깨끗이 해주기, 좋은 어머니 되어주기, 배꼽돌보기, 우는 아기 달래주기, 이상증상발견, 딸국질 멈추게 하기, 포옹 등의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연구한 이(198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82 - .85$ 이었으며,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의 영아돌보기 자신감을 연구한 백(199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128$ 이었다.

##### 2) 양육태도

어머니가 아기를 기르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ohler가 개발한 어머니의 태도 측정도구의 항목 중 아기 양육에 관한 20개의 항목을 선정 수정번안하여, 부정문의 항목에 대해서는 반대로 점수를 주었다.

본 도구는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기양육에 관련된 긍정적인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저체중 출생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연구한 조(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8753 - .983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73$ 이었다.

####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1998년 10월부터 1999년 1월까지 수집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실험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먼저 실험군 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하고 교육시킨 후 4주에 사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에 대조군 어머니 20명에게는 사전조사한 후 산과병실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행하는 통상적인 교육과 아기돌보기 책자 제공 이외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4주 후에 재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 회수율은 100%였으며, 총 8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사후

의 자료수집은 산부인과 외래 내원시 작성한 설문지를 제출토록 하거나 반송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8.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동질성 검증은  $\chi^2$  검정으로, 가설과 어머니의 자신감 및 양육태도 내용별 교육프로그램 적용효과검증은 Independent sample t 검정으로 검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신생아의 성별은 남아가 총 대상자의 62.5%를 차지하였고, 분만형태는 총 대상자의 60.0%가 제왕절개로 분만하였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20대가 과반수(55.0%)를 차지하였고, 아버지의 연령은 30대가 62.5%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50.0%가 대졸이상하였고, 아버지의 학력은 70.0%가 대졸이상하였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대부분(72.5%)이 주부였다. 임신력은 초산과 경산이 각각 50.0%였고, 월평균 수입은 두 군 모두 100-199만원이 가장 많았으며(52.5%), 대상자의 총 92.5%에서 산후 조력자가 있었다. 유산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각각 동률(50.0%)이었고, 대상자의 총 92.5%가 원하는 임신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어서 두 군은 동질하였다(표 1).

##### 2. 가설검증

1. 제 1 가설: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어머니의 자신감 정도가 높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어머니의 자신감을 보면 실험군의 교육전 평균은 53.35에서 교육후 62.90으로 9.55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교육전 54.35에서 교육후 59.10으로 4.75증가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있는 것으로 나타나 ( $p=.016$ ) 제 1 가설은 지지되었다(표 2).

즉 교육을 받은 어머니는 교육받지 않은 어머니보다 교육후 신생아 돌보기에 자신감이 있었다.

2. 제 2 가설: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양육태도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보면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교

육전 65.95에서 교육후 78.75로 12.80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평균은 교육전 65.95에서 65.45로 0.45감소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p=.000$ )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표 3).

즉, 교육을 받은 어머니는 교육받지 않은 어머니보다 교육후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 3. 신생아 돌보기 내용별 어머니의 자신감에 대한 교육 효과

신생아를 돌보는 내용별로 산모의 자신감에 대한 교육효과를 검정한 결과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내용은 포옹( $p=.001$ ), 기저귀 갈아주기( $p=.010$ ), 수유하기( $p=.025$ ), 배꼽돌보기( $p=.019$ )로서(표 4-1) 이들은 교육의 효과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내용중 실험군의 경우 교육전에 비해 교육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내용은 「배꼽돌보기」였으며, 다음은 「수유하기」, 「기저귀 갈아주기」, 「목욕시키기」의 순이었다. 가장 변화가 적은 내용으로는 「딸꾹질 멈추게하기」와 「영아상태설명」이었다. 대조군의 경우는 실험군과 동일하게 「배꼽간호」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다음은 「울음의 의미 파악하기」와 「손발톱깎아주기」 및 「딸꾹질 멈추게 하기」였다. 또한 교육전에 비해 교육후에 변화가 가장 적었던 내용으로는 「포옹」과 「영아상태설명」이었다(표 4-2).

실험군에서는 「포옹」이 4위로 교육전후 점수차가 컸으나(.80) 대조군에서는 16위로 점수차가 없었던 것(.00)과 실험군에서는 16위로 점수차가 적었던(.20) 「딸꾹질 멈추게하기」가 대조군에서는 2위로 점수차이(.45)가 컸다(표 4-1, 4-2).

##### 4. 양육태도에 관한 내용별 교육효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내용별로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다음의 내용들은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여( $p<.05$ )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 즉 「아기가 웃기 시작하거나 타인을 의식하기 전까지는 독립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p=.000$ ), 「아기에게 분유먹이기 보다 모유먹이기를 더 좋아한다」( $p=.000$ ), 「어릴수록 돌보기가 힘들다」( $p=.001$ ), 「갓난 아기들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 $p=.001$ ), 「어머니는 할 수 있는 한 모유를 먹이는 것이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N=40

특 성	구 분	중 재 군		대 조 군		계		χ <sup>2</sup>	P값	
		빈도	(%)	빈도	(%)	빈도	(%)			
아기	성 별	남	13	65.0	12	60.0	25	62.5	.107	.744
		여	7	35.0	8	40.0	15	37.5		
	분만형태	자연분만	7	35.0	5	25.0	12	30.0	.476	.490
		제왕절개	13	65.0	15	75.0	28	70.0		
	출생시체중 (g)	3200 미만	7	35.0	12	60.0	19	47.5	2.506	.113
		3200 이상	13	65.0	8	40.0	21	52.5		
입원기간 (일)	4이하	7	35.0	5	25.0	12	30.0	.476	.490	
	8이상	13	65.0	15	75.0	28	70.0			
부 모	연 령 어머니	20대	12	60.0	10	50.0	22	55.0	1.241	.538
		30대	8	40.0	9	45.0	17	42.5		
		40대	—	—	1	5.0	1	2.5		
	아버지	20대	5	25.0	4	20.0	9	22.5	.151	.927
		30대	12	60.0	13	65.0	25	62.5		
		40대	3	15.0	3	15.0	6	15.0		
	학 령 어머니	중졸	1	5.0	—	—	1	2.5	4.116	.128
		고졸	12	60.0	7	35.0	19	47.5		
		대졸이상	7	35.0	13	65.0	20	50.0		
	아버지	중졸	1	5.0	1	5.0	2	5.0	1.034	.596
		고졸	5	25.0	5	25.0	10	25.0		
		대졸이상	14	70.0	14	70.0	28	70.0		
어머니 직업	전문직	2	10.0	6	30.0	8	20.0	3.310	.346	
	회사, 공무원	1	5.0	1	5.0	2	5.0			
	주부	16	80.0	13	65.0	29	72.5			
	기타	1	5.0	—	—	1	2.5			
임신력	초산	11	55.0	9	45.0	20	50.0	3.089	.213	
	경산	9	45.0	11	25.0	20	50.0			
월평균 수입 (원)	100-199만	10	50.0	11	55.0	21	52.5	.125	.940	
	200-299만	7	35.0	6	30.0	13	32.5			
	300만이상	3	15.0	3	15.0	6	15.0			
산후조력자	유	18	90.0	19	95.0	37	92.5	.360	.548	
	무	2	10.0	1	5.0	3	7.5			
유산경험	무	12	60.0	8	40.0	20	50.0	1.600	.206	
	1회이상	8	40.0	12	60.0	20	50.0			
원하는 임신	예	17	85.0	20	100.0	37	92.5	3.243	.072	
	아니오	3	15.0	—	—	3	7.5			

〈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후 어머니의 자신감 비교

구 분	실 수	전 후		전후차	t값	P값
		M ± SD	M ± SD			
중 재 군	20	53.35±7.25	62.90±5.03	9.55	2.519	.016*
대 조 군	20	54.35±7.93	59.10±6.27	4.75		

\*p<.05

〈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후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

그 룹	실 수	전		후		전후차	t값	P값
		M ± SD	M ± SD	M ± SD	M ± SD			
중재군	20	65.95±5.10	78.75±6.70	12.80	5.545	.000*		
대조군	20	65.95±4.64	65.45±6.69	-.45				

\*p<.05

〈표 4-1〉 신생아 돌보기 내용별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

(N=40)

내 용	실 험 군			대 조 군			t값	P값
	사전	사후	전후차	사전	사후	전후차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포옹	3.80	4.60	.80	3.85	3.85	.00	3.559	.001*
기저귀 갈아주기	3.85	4.70	.85	3.80	4.15	.35	2.693	.010*
수유하기	3.25	4.15	.90	3.05	3.30	.25	2.331	.025*
배꼽돌보기	2.80	3.90	1.10	3.15	3.65	.50	2.449	.019*
옷갈아입히기	3.85	4.50	.65	3.85	4.10	.25	1.931	.061
안아주기	3.70	4.20	.50	3.60	3.95	.35	.661	.512
좋은 어머니 되어주기	3.70	4.15	.45	3.60	3.85	.25	.755	.455
체온측정	3.65	4.15	.50	3.55	3.75	.20	1.453	.154
영아상태설명	3.40	3.75	.35	3.75	3.85	.10	1.286	.206
손발톱깎아주기	3.30	3.65	.35	3.35	3.80	.45	-4.20	.677
눈코귀 깨끗이 해주기	3.20	3.85	.65	3.45	3.75	.30	1.576	.123
우는 아기 달래주기	3.15	3.55	.40	3.25	3.45	.20	.831	.411
땀띠질 멈추게 하기	3.05	3.25	.20	3.25	3.70	.45	-1.144	.260
목욕시키기	2.95	3.75	.80	2.90	3.15	.25	1.868	.070
울음의 의미파악하기	2.85	3.40	.55	2.80	3.25	.45	.461	.648
이상증상발견	2.85	3.35	.50	3.15	3.55	.40	.418	.679

\*p<.05

〈표 4-2〉 신생아돌보기 내용별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후차 순위

(N=40)

내 용	실 험 군		대 조 군	
	전후평균차	순위	전후평균차	순위
배꼽돌보기	1.10	1	.50	1
수유하기	.90	2	.25	9
기저귀 갈아주기	.85	3	.35	6
목욕시키기	.80	4	.25	9
포옹	.80	4	.00	16
눈코귀 깨끗이 해주기	.65	6	.30	8
옷갈아입히기	.65	7	.25	9
울음의 의미파악하기	.55	8	.45	2
이상증상발견	.50	9	.40	5
체온측정	.50	9	.20	14
안아주기	.50	9	.35	6
좋은 어머니 되어주기	.45	12	.25	9
우는 아기 달래주기	.40	13	.20	13
손발톱 깎아주기	.35	14	.45	2
영아상태설명	.35	14	.10	15
땀띠질 멈추게 하기	.20	16	.45	2

좋다」(p=.001), 「생후 1개월내의 아이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때 매우 좌절감을 느낀다」(p=.004), 「아기들은 모유먹기를 분유먹기보다 좋아한다」(p=.006), 「아기들은 자기자신만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p=.016), 「아기를 돌보는 일은 즐겁기보다는 힘든 일이다」(p=.023), 「아기를 돌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는 다른 일을 할 틈이 없다」(p=.049)의 내용들이었다(표 5). 또한 실험군의 경우, 20개의 모든 항목에서 사전조사시의 양육태도보다 사후조사시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나 대조군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

〈표 5〉 어머니의 양육태도 내용별 실험군과 대조군 비교 (N=40)

내 용	실 험 군			대 조 군			t값	P값
	사전	사후	전후차	사전	사후	전후차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어머니는 아이가 웃기 시작하거나 타인을 의식하기 전까지는 독립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4.10	4.65	.55	4.00	3.80	-.20	3.887	.000*
어머니는 아기에게 분유먹이기 보다 모유먹이기를 더 좋아한다.	4.05	4.40	.35	4.00	3.10	-.90	4.158	.000*
아기는 어릴수록 돌보기가 힘들다.	2.95	3.80	.85	3.40	3.15	-.25	3.559	.001*
갓난 아기들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	3.10	4.10	1.00	3.40	3.35	-.05	3.804	.001*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4.05	4.75	.70	3.85	3.35	-.50	3.479	.001*
생후 1개월내의 아이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때 매우 좌절감을 느낀다.	3.40	4.10	.70	3.60	3.55	-.05	3.039	.004*
아기들은 모유먹기를 분유먹기보다 좋아한다.	3.00	3.95	.95	3.05	3.00	-.05	2.942	.006*
아기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	2.75	3.65	.90	2.70	2.90	.20	2.534	.016*
아기를 돌보는 일은 즐겁기 보다는 힘든 일이다.	3.65	4.20	.55	3.45	3.25	-.20	2.367	.023*
아기를 돌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는 다른 일을 할 틈이 없다.	3.3	3.85	.55	3.25	3.15	-.10	2.035	.049*
아기가 울 때마다 안아주거나 돌보아 주는 것이 좋다.	3.05	3.70	.65	3.05	2.95	-.10	1.852	.072
모유를 너무 오래 계속하면 아기가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 쉽다.	3.10	3.80	.70	3.50	3.55	.05	1.845	.073
생후 1개월내의 아이는 무슨일이 잘못되지 않는 줄 알지 않는다.	2.15	3.35	1.20	2.10	2.70	.60	1.563	.126
아기가 우유를 반병정도밖에 마시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다.	2.20	2.80	.60	2.40	2.45	.05	1.303	.201
유아들의 우유는 규정대로 정해진 시간에만 먹어야 한다.	3.80	4.35	.55	3.35	3.35	.15	1.608	.116
부모는 아기가 울 때마다 달래주어야 한다.	3.00	3.65	.65	2.75	3.20	.45	.489	.627
아기를 가짐으로 생기는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했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3.15	3.50	.35	3.35	3.30	-.05	1.108	.275
모유는 분유보다 나쁠지도 모른다.	4.45	4.65	.20	3.95	3.75	-.20	1.329	.192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35	3.70	.35	3.35	3.65	.30	.170	.866
아기는 팔다리를 지나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3.35	3.80	.45	3.40	3.80	.40	.144	.886

\*p<.05

## V. 논 의

어머니에게 아기 돌보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고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머니의 교육 전·후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양육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기를 돌볼 때 교육후 어떤 면에 자신이 생겼고 어떤 면의 양육태도가 변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육과 어머니의 아기돌보기 자신감

아기 돌보기 활동은 어머니의 역할이다. 어머니 역할 획득은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며, 산모가 아기간호에 대하여 적절히 준비되었다는 감정을 크게 가질수록 만족감이 더 크고 출생 3개월 동안 아기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게 된다(Gutnarscu, 1983 ; Pridham, 1982).

본 연구결과에서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군은 받지 않은 군보다 어머니의 아기돌보기 자신감의 점수가 높아졌다(표 2). 즉, 교육을 받은 어머니는 교육을 받지 않은 어머니보다 아기 돌보기 자신감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특히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은 분만직후 아기의 양육경험이 없는 때보다 아기를 기르면서 학습되어 지식과 기술이 확장되지만 어머니가 교육을 받으면 그 보다 더 확장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산모 교육후 어머니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을 연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정상아를 분만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분만후 1-3일에 교육시킨후 10-12일에 자신감을 조사한 이(1990)의 연구결과에서는 교육군과 비교육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군이나 비교육군은 사전과 사후의 시간경과에 따른 자신감은 양군 모두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콕(1996)의 산과 병실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실시하는 체계적, 비체계적인 교육 실시후 퇴원직전에 어머니의 자신감을 조사한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다. 그리고, 서(1998)의 초산모대상의 1회의 직접교육과 퇴원후 1주와 2주의 2회의 전화상담 후 분만 4주 후에 조사한 어머니의 자신감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박(1991)의 초산모 대상으로 교육전·후 자신감을 비교했을 때, 퇴원전보다 퇴원후 1주일에 조사한 교육후 자신감은 더 높아졌고, 정(1993)의 분만 후 2-3일된 초산모대상의 교육후 12-14일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콕(1996)과 박(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는 산모교육 후 사후조사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이 짧거나 퇴원 직전에 교육효과를 조사하였으므로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서(1998)는 1회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적용과 퇴원 후 2회의 전화상담을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1회의 교육프로그램 적용으로도 교육의 효과를 본 것이므로 임상에서 현실적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와 동일한 자신감도구를 이용한 연구들과 비교하면, 분만 후 4-6주에 영아 돌보기 자신감을 조사한 백(1990)의 연구결과에서 42.48을, Walker 등(1986)은 55.33을, 이(1987)는 49.81을 보고하여 이들은 본 연구결과와 사후 실험군 62.90, 대조군 59.10보다 낮았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 산모나 남편의 학력이 대졸이상자가 많고 산과 병실이나 신생아실에서 전보다 체계적인 산모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인 신생아돌보기 내용은 포옹, 기저귀 갈아주기, 수유하기, 배꼽돌보기였으며, 두 군 모두에서 사전과 사후 비교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내용은 배꼽돌보기였다. 배꼽돌보기에 관하여, 사전조사시에는 배꼽이 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으나 사후조사시에는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밖의 포옹, 기저귀 갈아주기, 수유하기에 관하여는 다른 항목보다도 수차례의 반복학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며 이는 돌보기 활동을 포함한 어머니 역할 획득이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라는 Butnarscu(1983)의 이론이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험군에서 산모가 자신감 있다고 또한 항목은 배꼽돌보기, 수유하기, 기저귀 갈아주기로서 백(1990)의 연구결과인 수유하기, 기저귀 갈아주기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최저점수를 차지한 「딸꾹질 멈추게 하기」, 「영아상태설명」, 「손발톱 깎아주기」 및 「우는 아기 달래주기」는 백(1990)의 영아울음 파악하기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실험군에서는 「포옹」이 4위로 교육전후 점수차가 컸지만(.80), 대조군에서는 16위로 점수차가 없었던 것(.00)과 실험군에서는 16위로 점수차가 적었던 「딸꾹질 멈추게 하기」가 대조군에서는 2위로 점수차가 컸던 것(.45)은 특기할 만하다.

### 2. 교육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자녀에 대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와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양육태도라 한다.

Bigner(1985)도 모아 체계내의 균형과 안정성은 어머니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태도변화는 모아 상호작용의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양육태도는 실제의 경험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퇴원 시 측정된 산모의 양육태도는 대부분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한 양육경험이 없었던 시기이지만 퇴원후 4주에 측정된 양육태도는 그동안 아기를 길러본 후 상상했던 아기에 대하여 실제로 산모가 갖는 양육태도이므로 변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경우, 교육후의 평균점수가 교육전의 평균점수보다 12.80증가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교육전보다 교육후에 -0.45로 감소되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산모교육을 통해 신생아의 특성을 설명하게 되고 신생아에 관해 사전 지식을 갖게 되므로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조군의 경우 아기를 기르면서 좋게 상상했던 아기와는 달리 실제 산후 첫달은 매우 적응이 힘든 때이므로(Furr & Kingis, 1982), 아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갖고 있던 신념이나 태도가 사회화와 과거 경험의 결과라고 한 Bigner(1985)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방(1991)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태도는 분만 후 2-3일, 1, 3, 6개월에 거의 변화없이 일정하였다고 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각 나라의 사회적 관습이나 가치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경험과 가치에 따른 신념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시간이 경과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아기는 언어의 이해도가 높으며, 짜증을 내지 않고, 기분좋은 음성을 내고, 부정적인 반응을 덜한다(Sarale et al, 1978). 부정적이고 부적응적인 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부적절한 신체적 돌봄과 함께 보호의 결여, 부적절한 영양공급, 및 아기와의 관계시 경직되거나 긴장된 자세를 취하며, 아기의 신호와는 무관하게 아기를 잡자기 움직이거나 아기에게 불쾌한 언어적,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등 아

기의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에, 적응적인 어머니는 아기를 편안히 안고서 포옹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주기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흔들며, 점차 관심을 갖고 주의를 집중하여 눈접촉을 시도하며, 미소를 띠는 등의 양상을 나타낸다(김, 1991).

아기가 성장발달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변하고 이에 따라 어머니의 행동도 변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하여 20개 항목 중 10개 항목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기가 웃기 시작하거나 타인을 의식하기전까지는 독립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아기에게 분유먹이기 보다 모유먹이기를 더 좋아한다」, 「아기는 어릴수록 돌보기가 힘들다」, 「갓난 아기들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 「할 수 있는 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생후 1개월내의 아이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때 매우 좌절감을 느낀다」, 「아기들은 모유먹이를 분유먹기보다 좋아한다」, 「아기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 「아기를 돌보는 일은 즐겁기보다는 힘든 일이다」, 「아기를 돌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는 다른 일을 할 틈이 없다」의 항목이다.

그리고 이 중 「아기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항목과 「아기가 울 때마다 안아주거나 돌보아 주는 것이 좋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했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것」, 「모유는 분유보다 나쁠지도 모른다」의 3개 항목은 대조군의 경우, 사후 점수가 사전점수보다 감소하여 부정적인 태도로 변화하였으나 실험군의 경우는 20개 모든 항목에서 사전점수보다 사후 점수가 증가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였다. 이는 교육의 효과이며 개인의 경험과 가치에 따른 신념의 변화로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태도가 변한 것으로 보여진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의 어머니의 자신감 및 양육태도를 비교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연구이다. 서울의 K의료원에서 정상 신생아를 분만한 산모 4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20명에게는 분만후 2-3일에 교육책자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산모교실을 통해 30-40분간 교육시켰고 실험군과 동질의 대조군 20명에게는 산과병

실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행하는 통상적인 교육과 아기 돌보기 책자를 제공했을 뿐이다. 자료수집은 아기 분단 2-3일 후에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가보고식으로 1차 사전조사를, 퇴원 후 4주에 2차 사후조사로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8.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chi^2$ 검정, Independent samle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에 관한 측정도구는 Pharis (1978)의 Self Confidence Scale을 토대로 5점척도의 16문항과 아기의 양육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는 Cohler의 모성 양육태도도구의 내용 중 20문항을 선정한 5점척도의 도구이며 특정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신감 정도가 높고,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1가설인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어머니의 자신감 정도가 높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2. 제 2가설인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3. 신생아 돌보기 내용별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두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차이를 보인 내용은 포옹, 기저귀 갈아주기, 수유하기, 배꼽돌보기 이었다.
4.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내용 중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교육프로그램의 적용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두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차이를 보인 내용은 「아기가 웃기 시작하거나 타인을 의식하기 전까지는 독립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아기에게 분유먹이기 보다 모유먹이기를 더 좋아한다», 「어릴수록 돌보기가 힘들다», 「갓난 아기들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 「어머니는 할 수 있는 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생후 1개월내의 아이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때 매우 좌절감을 느낀다», 「아기들은 모유먹이를 분유먹기보다 좋아한다», 「아기들은 자기자신만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 「아기를 돌보는 일은 즐겁기보다는 힘든 일이다», 「아기를 돌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는 다른 일을 할 틈이 없다」로서 교육전보다 교육후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 1. 제 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신생아 돌보기에 대해 다양하고 적용이 용이한 교육 방법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2.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 되는지를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3.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효과에 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곽연희 (1996). 산모교육의 효과측정 ; 산육기 자가간호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정도와 자신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문실, 이자형 (1983). 신생아 양육에 대한 산모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I. 중앙의학, 44(1), 25-30.
- 김태임 (1991).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태도와 초기수유 상황에서 모아상호작용 양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금자 (1989). 산육기 간호활동에 대한 산모와 간호사의 중요도에 대한 비교연구. 복음간호 전문대학논문집, 6.
- 박미숙 (1992). 모자동실(Rooming-in)과 모자별실 초산모의 영아 돌보기 자신감에 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 (1991). 산육기 초산모의 모성전환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방경숙 (1991). 영아의 월령에 따른 초산모의 모아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미례 (1990).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영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의 역할 전환에 따른 어려움과 만족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미 (1998). 신생아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이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 자신감, 행동 정확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28(4), 1060-1074.
- 원정선 (1990). 부모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1990).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교육이 산모의 돌보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은 (1992). 산육초기 초산모의 간호목표 달성방법 합의가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숙 (1987).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경 (1992).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역할획득 모형구  
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계화 (1993). 신생아 돌보기 교육유무에 따른 초산모  
의 영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비교. 충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조결자 (1996). 가족중심의 아동간호학 I. 서울, 수문사,  
83-84, 107.
- 조결자, 정연, 이군자 (1996). 저출생 체중아 어머니와  
정상신생아 어머니의 간호교육요구도 조사. 아동  
간호학회지, 5-18.
- 한경자 (1997). 영아 어머니의 자녀돌보기 부담감과 지  
지교육 및 상담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  
회지, 3(2), 228-240.
- Bigner, J. J. (1985).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57-136.
- Brown, B. (1982). Maternity-patient Teaching a  
Nursing Priority. JOGN Nurs, 11(1), 11-14.
- Butnarscu, G.F., et al. (1983). Maternity nursing :  
Theory of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Camp, B. W., & Morgan, L. J. (1984). Child-rearing  
Attitude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Ado-  
lescent mothers ;attitudes toward the infant.  
Pediatric psychology, 9(1), 57-63.
- Dyer, E. D. (1983). Courtship, Marriage, and family  
American style, Homewood, Illinois: The  
Dorsey Press.
- Field, T. M., Widmayer, S. M., Stringer, S.,  
Ignatoff, E. (1980). Teenage, lower-class,  
Black mothers and their preterm infants : an in-  
tervention and developmental follow-up. Child  
Develop., 51(2), 426-436.
- Furr P. A., Kirgis C. A. (1982). A nurse midwifery  
approach to early mother-infant acquaintance,  
J. of Nurse Midwifery, 27(5).
- Holditch-Davis, D., and Miles M. S. (1983).  
Parenting the prematurely born child : path-  
ways of Influences, Seminars in Perinatology,  
21(3), 254-266.
- Josten Lavohn (1982). Contrast in Prenated prep-  
aration for mothering. MCNJ, 11(2), 65-73.  
(1982).
- Klaus, M. et al (1972). Maternal attachment, im-  
portance of the first postpartum day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86, 460-463.
- Klaus, M. H., and Kennell, J. H. (1981).  
Mother-Infant Interaction, implications for  
adolescent mothering. Birth Defects, 13, 123-  
129.
- Lemaster, E. E. (1977). Parenthood as Crisis, Mar-  
riage today problem : Issue and alterantes,  
Sehenkman Publish Co., 461-466.
- Lipkin, G. B. (1978). Parent-child nursing psy-  
chosocial aspects, 11th ed., St. Louis, Mosby  
Co., 112-117.
- Pridham, K. F. (1981). The meaning for mothers of  
new infant : Relationship to maternal experi-  
ence. Maternal-Child Nursing Joournal, 10,  
11-126.
- Rauth, V. A., Achenbach, T. M., Nurcombe, B.,  
Howell, C. T., Tet, D. M. (1988). Minimizing  
Adverse Effects of Low Birthweight :  
four-year results of an early intervention  
program, Child development, 59(3), 544-554.
- Reeder, M. (1987). Maternity nursing. 16th ed.,  
Lippincott Co.
- Rubin, R. (1967). Attainment of the Maternal  
role-Part I. process. Nursing Research, 16(3),  
237.
- Russel, C. S. (1974).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5),  
294-302.
- Sarale, E. C., Leila, B., & Arthur, H. P. (1978).  
Receptive language development in preterm chil-  
dren as related to caregiver-child interaction.  
Pediatrics, 61(1), 16-20.
- Shaw, N. R. (1974). Teaching young mothers their  
role. N.O., 22, 695-698.
- Sroufe, L. A. (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s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Walker, L. O., Crain, H., Thompson, E. (1986).  
Mothering Behavior and Maternal Role  
Attainment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Nursing Research, 35(6), 352–355.

– Abstract –

Key concept : Caring–Confidence, Rearing Attitude,  
Newborn mother

### **The Effect of the Educational Program on Caring–Confidence and Rearing Attitude in Mothers with Newborns**

*Cho, Kyoul–Ja\* · Lee, Kun Ja\*\* · Lee, Ohk Ja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whether the educational program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caring confidence and rearing attitude of the newborn mother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40 newborn mothers—20 control group and 20 experimental group—who delivered a normal neonate and were gotten general informations from the nurses at the K medical center in Seoul. Especially, the experimental

group was educated for 30–40 minutes in maternal educational program through lectures, demonstrations, discussion with textbooks and visual materials by a researcher at 2–3 days after delivery.

The data were collected two times—at 2–3 days after delivery and at 4 weeks after discharge—from October, 1998 to January, 1999 by investigators interviewing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Pharis(1978)'s self confidence scale was used after some modification to measure caring confidence and Cohler's maternal attitude scale to check mother's rearing attitude.

Analysis of data was done by using of frequency, %,  $\chi^2$ –test, Independent sample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Confidenc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t=2.519$ ,  $p=.016$ ) and the rearing attitude changed more positively( $t=5.545$ ,  $p=.000$ ).
2. In the confidence scale, the statements having a significant change were holding a baby, changing diapers, feeding, and caring umbilicus.
3. In the rearing attitude scale, the statements having a significant change were 12 of 20 statements.

---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Kachun Gil College